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教新聞

전통 한방향의 본가
취운향당 www.cwh.co.kr 취운향당
☎ 054) 933-6371~2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7년 1월 1일 (2013년 / 단기 4346년 음력 11월20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77호 화

힘차게 시작하는 새해 3500석 호국연무사 법당을 가득 메운 훈련병들의 우렁찬 목소리에서 불교의 희망을 느낀다. 청년포교의 길목, 훈련소에서 만난 청년들은 불교를 즐기며, 역사와 소통하고 있었다. 사진은 지난 12월22일 논산 호국연무사에서 통도사 전계사 혜남스님을 법사로 열린 수계법회를 찾은 훈련병들. 논산=김형주 기자

"비었음이나 신령하고 공함이나 묘함이라…"
〈空〉 〈妙〉

계사년 신년법어

진제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비었음이나 신령(神靈)하고.
공(空)함이나 묘(妙)함이라.
일단광명(一段光明)이 생불(生佛)의 요긴한 기틀이요,
확철시방(廓徹十方)이 범성(凡聖)의 주처(住處)로다.

계사년 새 아침에 온 국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우리 강산(江山)에 무궁화가 만발하소서.

인생(人生)을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길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할지어다.

옛날에 종심(從諗) 사미승(沙彌僧)이 출가하여 남전(南泉) 도인을 친견하니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서상원(瑞祥院)에서 왔습니다."

"서상원에서 왔으면 상서스러운 상(相)을 보았는가?"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계신 부처님은 보았습니다."

"네가 주인 있는 사미승인가? 주인 없는 사미승인가?"

"선사님, 정월달이 매우 추우니 귀하신 법체(높으신 몸) 유의하옵소서."

사미승의 대답이 이와 같으니, 남전 선사께서 원주를 불러 사미승을 깨끗한 방에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온 국민 여러분, 이 두 분의 문답처를 아시겠습니까?

若是金毛獅子子
三千里外知問答處
만약 금털사자의 적자(嫡子)라면
삼천리 밖에서 문답처를 알리라.

불기 2557년(2013년) 1월 1일

아름다운 동행은…비움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명은 적대와 경쟁관계가 아닌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고마운 관계"

2013년 신년사

자승
조계종총무원장

계사년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은 남과 북을 가르지 않고 태양은 산하대지에 고르게 찬란한 빛을 내려 만물을 생장하게 합니다. 이렇게 본래 평등의 마음 바탕에 공존과 상생의 씨를 뿌리고 가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화엄의 꽃을 피우도록 정진합시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맘껏 발휘하면서 뭇 생명들과 조화와 상생의 꿈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비움과 나눔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적대와 경쟁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도움과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고마운 관계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실상에 눈뜰 때 우리는 뭇 생명과 더불어 비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비움과 나눔은 곧 지혜와 자비의 일상적 구현이며 수행과 보살행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세상은 늘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속도와 경쟁, 이기적 욕망의 충족 때문에 투쟁합니다.

비움이란 이러한 생각과 삶의 행위가 부질없고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잘못된 가치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욕망으로 나타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워낼 때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동체대비는 곧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으며,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나눔은 우열과 종속, 차별과 승부라는 상극의 관계에서 더불어 존재하고 더불어 성숙하는 상생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생태의 파괴, 양극화 문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눌 때 화해하며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고마운 존재임을 깨닫는다면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남을 해치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일,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 차이를 차별로 생각하지 않고 조화와 공존으로 생각하는 일, 따뜻한 손길과 넉넉한 위로와 미소를 보내는 일,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은 부족해도 나누고 많아도 나눌 수 있는 보살행입니다.

계사년 새해,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바로 내 이웃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소유자이신 벗들이여!
비움과 나눔으로
자유로우소서
평화로우소서
행복하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불교문인 등용문'
2013 본지 신춘문예 당선자 발표

소설-엄정숙 '거북…'
시-최길하 '탑'
동화-부복정 '해피…'

불교문인의 등용문이자 한국문학의 산실로 인정받고 있는 불교신문 신춘문예가 올해 사상 최다 응모작들이 몰렸다. 쟁쟁한 심사위원과 한층 강화된 당선상금으로 신예작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불교신문 신춘문예 심사위원은 소설가 한승원씨와 고은 시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등이 맡았다.

▶당선작 전문 B1~9면

소설부문은 300여편의 응모작 가운데 엄정숙씨의 '뒤집어진 거북들의 시간'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맡은 한승원 작가는 "문장이 정확하고 섬세하고 감칠맛이 있다"면서 "아이의 시점과 여인의 시점이 교차 서술되는데 짜임새도 좋고 형상화에 성공했으며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장치를 활용할 줄도 안다"고 평했다.

시 부문은 5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응모했고, 편수만도 3000편을 웃돈다. 고은 시인은 1차 심사를 거친 100여명이 응모한 작품에서 최길하씨의 시 '탑'을 최종당선작으로 뽑았다. 고은 시인은 심사평에서 "'탑'은 번잡을 다 벗어나 있다. 그렇다고 결핍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단호하고 단정하다. 참 경지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시 당선자 최길하씨는 "성을 쌓고 스스로 성에 가두어진 성주와 성 안에 백성이 있는 연방을 바라보면서 소외자가 치고나갈 방편으로 시를 응모하게 됐다"면서 소감을 말했다.

매년 100여 편 안팎의 응모자가 몰렸던 동화부문에서도 올해는 200여편에 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당선작은 부복정씨의 동화 '해피바이러스'에 돌아갔다. 심사위원 홍기삼 문학평론가(전 동국대 총장)는 "당선작은 항상 명랑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누리'라는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라며 "다른 수작들에 비해 과도한 의인화 때문에 발생하는 어색함이 없이 사건의 개연성을 잘 성취하고 있다"고 평했다. 부복정씨는 "동화를 쓰고 싶다고 가게일도 소홀하며 노트북에 매달려 있는 나를 타박하기 보다는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거라고 무한한 희망을 준 남편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중에 열릴 예정이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辭 令

김선두 命 편집국 편집부장
여태동 命 편집국 취재1부장
안직수 命 편집국 취재2부장
김형주 命 편집국 온라인뉴스부장
김태하 命 업무국 관리부장
채석봉 命 업무국 광고부장
김성동 命 업무국 독자기획사업부장

2013년 1월 1일자

신년특집 56면 발행
2878호는 1월9일자 간행합니다